

# 무심으로 찍은 사진... 전시회까지

## 사진동우회 '심상', '암자에 길을 묻다 I'展 열통해 신심 뽐내



‘심상’ 회원인 원혜영 씨의 육사암.

국제선센터에서 4월 22~27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 부천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진작가들이에요.”

사진동우회 심상(心象)과의 만남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사진동우회라는 말에 여느 동우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취미생활로 모인 이들이 사진 좀 찍다 싶었는데, 이들이 벌써 사진 활동을 해 온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다. 또, 작품 실력을 보아하니 웬만한 아마추어들이 아니었다. 심상에는 이미 사진 작가협회에 소속될 만큼 실력이 뛰어난 작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평균적으로 준 프로급 이상들이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 모두가 다 불자라는 사실이다. 심상의 회원들

은 모두 부천 석왕사의 신도들로서, 1989년에 처음 창립된 이후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불교’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왔다.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불교 포교에 힘써왔음에도 많은 불자들이 ‘심상’이라는 존재를 잘 알지 못한다.

“불자들은 잘 몰라도, 사찰에 스님들은 저희를 많이 알고 계세요. 사진은 찍기 위해 전국의 사찰들을 돌아다니는 이유도 있지만, 매년 전시회를 열고 사진집을 전국사찰에 배포 시 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심상은 부천에선 이미 유명 인사들이다. 14년 전부터 지역 내 복지회관과 결연해 가족사진, 칠순·팔순 잔치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장수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웬만한 축제에는 거의 참가해 지역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에는 심상이 빠지는 일이 거의 없다.

“매년 전시회를 열고 나름 사진으로 불교포교에 힘써왔지만, 회원 수가 적어 전시회 준비하는 것도 벅차, 매년 홍보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불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심상에는 14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이 심상과 인연을 맺게 된 연유도 저마다 다양하다. 심상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향숙 씨는 다른 사진 동우회에서 활동을 해오다 자신이 다니는 사찰의 스님의 권유로 심상에 들어오게 됐으며, 손상훈 씨는 우연히 전시장을 찾았

다가 신입회원 모집공고를 보고 심상과 인연을 맺게 됐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무료한 하루를 보내다 우연히 ‘사진으로 보는 문화교육’ 강좌를 통해 심상에 들어온 이가 있는가 하면 마냥 사진이 좋아 심상에 들어온 이도 있었다.

강향숙 회장은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들로 삶이 굴곡지게 되는데 사진은 그럴 때마다 나를 지탱해 줬다”며 “사진작업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수행과 같다”고 말했다.

심상 회원들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정기출사(출장사진)를 나간다. 차량 이동이 많은 주말을 피해 이들은 생업이 따로 있음에도 사진을 위해 일부러 평일에 시간을 낸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 까지 꼬박 24시간 동안 한 컷이라도 더 좋은 작품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와 사투를 벌인다. 특히 전시회가 점점 가까워지면 좋은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찍기 위한 열정으로 뜨겁다.

“항상 전시회 때가 되면 아쉬워요. 더 좋은 작품을 찍고 싶는데 성에 차지 않으면 정말 속상하죠. 다른 회원들의 좋은 작품을 보면 마냥 부럽고요. 그래서 개별촬영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서로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하죠.”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들이라 면 불교 외에도 다른 소재로 작품을 남기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들은 “우리나라 문화재 80%가 불교 문화재이듯, 불교에는 작품 소재로 삼을 콘텐츠들이 무궁무진 하다”며 불교를 통해 사진촬영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좋은 작품을 하나라도 더 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도 한 가지 걱정



거리가 있다. 20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 작품들이 그대로 쌓여만 가기 때문이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이 재능을 더욱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아쉽습니다. 전시할 공간도, 사찰에 기부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시할 공간만 더욱 많이 주어진다면 많은 불자들에게 저희 작품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귀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들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암자들을 찾아다녔다. 심상 회원들은 산사에 조용히 자리한 암자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살이에 쌓여만 가는 번뇌와 집착들을 씻겨 내려가게 한다.

저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하기엔 아까운 추억들이 있다. 그런 소중한 찰나를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다. 사진은 과거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잡이이며,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소개시켜주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심상이 만들어낸 새로운 인연의 공간 ‘암자에 길을 묻다 I’전은 4월 22-27일 서울 국제선센터, 5월 9-10일 부천석왕사 전시실, 5월 13-18일 부천문화예전시관에서 열린다.

이은경 기자 soej84@naver.com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④ 드라마 49일

## 나에게 주어진 시간 ‘바로 지금’

착하게만 살아오던 한 아가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예정에 없던 그녀의 죽음은 저승사자도 당혹케 만들었다. 저승사자는 그녀에게 “49일 안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세 사람의 눈물을 49일 안에 모아 오면 이승으로 회생시켜 주겠다”고 일러준다. 그녀는 확신한다. 진정한 사람과 진실의 눈물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고. SBS 수목드라마 ‘49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이 재능을 더욱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아쉽습니다. 전시할 공간도, 사찰에 기부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시할 공간만 더욱 많이 주어진다면 많은 불자들에게 저희 작품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급하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나를 그리며 사랑의 눈물을 흘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어왔다. ‘진실’ 된 인연은 있었던가. 세상에 진실은 있었고, 사랑은 있었는가.

남규리(극중·신지현)의 영혼은 중유(中有)의 공간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다. 뜻밖에도 그녀는 자신의 거지된

살과 만난다. 유복했던 집안은 대출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

###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 있나요?

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약혼자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허깨비 같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뜻밖의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이었다.

그녀는 타인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는 떠도는 영혼이 돼서야 자신을 감췄던 무명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녀에게는 진심을 헤아리고 실체를 보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뒤늦게 발견한 자신의 거지된 삶을 바로 잡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전개 중이다.

부처님은 큰집을 증축하라고 정신없이 바쁜 노인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계승이 있어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잠깐의 시간이면 됐었다. 그러나 노인은 “아,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뒷날 다시 오시면 그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라며 부처님의 설법을 미뤘다. 잠시 후, 노인은 떨어진 시꺼미를 받고 죽었다. 그에게 ‘뒷

날’은 오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다.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면 진실된 인연도 알아보지 못하는 법인 듯하다.

“바쁘니까.” “다음에요.” 요즘 사람들 입에 달고 하는 말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독한 허깨비를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이다. 세상에 행복은 어디 있고, 진실은 어디 있는 것일까. 혼령이 됐을 때 과연 진실한 눈물을 구할 수 있을까. 진실한 인연은 맺을 수 있을까.

생사일여(生死一如), 불교에 살고 만나서 살고 죽음을 하

나라고 말한다. 경계도 없다고 한다. 하지

만 우리에게 죽음은 저만치 먼 일 같다. 삶의 진면목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사랑하는 이는 ‘지금 내 옆’에 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같고,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소중한 인연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는 일은 때늦은 발버둥이리라.

‘49일’은 ‘49재(四十九齋)’에서 착안한 작품으로 삶과 죽음, 진실과 허상, 인과를 보여준다.

49재는 망자를 위해 7일마다 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전개 중이다. 부처님은 큰집을 증축하라고 정신없이 바쁜 노인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계승이 있어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잠깐의 시간이면 됐었다. 그러나 노인은 “아,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뒷날 다시 오시면 그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라며 부처님의 설법을 미뤘다. 잠시 후, 노인은 떨어진 시꺼미를 받고 죽었다. 그에게 ‘뒷

그녀가 마무리는 49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던지는 삶의 과제이고 화두다. 그녀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회생할 수 있기를 응원해 본다.

유필화 교수의 계승으로 읽는 ‘경영의 지혜’

## 경영의 진리

시장(市場)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 떠나라,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욕구를 찾아서. 당신이 가는 길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당신의 목적지는 풍요로운 황무지. 당신의 몸은 현장, 가슴은 겸양, 머리는 상상력.

지극한 정성으로 원가를 낮추어라. 당신과 고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 여러 겹을 껴서 일을 성취하라.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한다.

경영은 위험과 불확실성의 보금자리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숨쉬게 하라. 질서와 혼돈을 적절히 포용하라.

경영은 위험과 불확실성의 보금자리.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숨쉬게 하라. 질서와 혼돈을 적절히 포용하라. 거문고의 줄을 너무 늦추거나 조이지 말아야 하듯이. 질서만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혼돈만 있으면 땅이 꺼져버린다.

이제는 섬기는 지도자의 시대. 고객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섬겨라. 시장은 당신의 회사를 사랑하고, 임직원들은 “이 회사는 내 회사다”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을 걸어 다니는 비전으로 볼 것이다. 당신의 회사는 변창하는 행복한 공동체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학장

(주)현대에너지텍 2011년 최신행

**농협용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용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평 ~ 20평까지

전조기(11평) 전조기(22평) 전조기(33평)

본사공정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원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 010-8442-4444 (상담) / 010-3534-8366 (농장)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佛祖正脉 불조정맥  
선문연승  
Hwa-da 話頭 화두

신간! < 선문연승 17권 >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허가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불조정맥 중, 영, 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 화 두 영, 중, 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